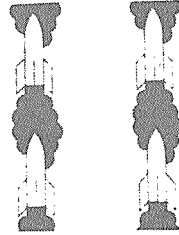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(1988. 5. 1 ~ 5. 31)

- 5. 1 : 企協中央會, 원貨 切上으로 중소제조업의 수출감소액이 1조 6,000억원에 달하고 1만5,000여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.
- 5. 2 : 科技処, 내년도 국책연구개발사업 자금으로 2,410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, 오는 2001년까지 연간 2조 2,7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.
- 5. 3 : 日本 大藏省, 日本의 87회계연도의 경상수지흑자는 845억 4,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5억 9,900만달러(10.1%)가 감소.
- 5. 3 : EC위원회, 유럽의 초전도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5,0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키로.
- 5. 3 : 工振庁, 행정·금융·연구교육·국방·공안전산망 등 5大 국가 기간전산망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분야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.
- 5. 3 : 미국전자산업연합회(AEA), 中共과의 전자제품 교역을 원활히 하기위해 北京에 AEA 회원을 대변하는 연락사무소 개설.
- 5. 4 : 科技処, 국가광역기술 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과학기술정보의 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키로.
- 5. 8 : 科技処, SW의 개발에 따른 적정대가를 보상함으로써 관련업체 및 SW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SW 개발비 산정기준 마련.
- 5. 10 : 商工部, POS 시스템의 국산개발을 적극 추진키로.
- 5. 11 : 商工部, 공동기술개발을 기피해온 국내기업들이 상호협력체제를 앞다투어 구축,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라고.
- 5. 12 : 工振庁, 올해 국산기계류·소재부품 40개 품목을 포함 모두 120개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쟁력

비교평가를 실시키로.

- 5. 14 : 商工部, 미국과 EC 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전자렌지·VTR·컬러 및 흑백TV 등 4개 전자제품의 최저 수출추천가격을 오는 6월부터 품목별로 3~5% 인상시킬 계획.
- 5. 14 : 韓國電氣通信公社,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일반전화망을 이용한 전국적인 퍼스컴 통신망을 구축키로.
- 5. 15 : 商工部, 오는 7월부터 수출검사대상품목을 현행 890 개에서 600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수출추천수수료도 0.18%에서 0.1% 선으로 낮춰 주기로.
- 5. 17 : 工振庁, 전기·전자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폐회기 등 관련 부품의 품질향상을 적극 지원키로.
- 5. 18 : 美 商務省, 미국의 3월중 무역적자는 2월의 138억달러에서 무려 41억달러가 감소한 97억달러를 기록했다.
- 5. 19 : IMF, 한국의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GNP의 2~3% 수준으로 축소해야하며 올해중 계속해서 원貨를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주장.
- 5. 22 : 日經新聞, 미국의 淸아시아 NICS 무역정책이 한국과 대만 두 나라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고.

- 5. 24 : 商工部, 우리나라의 무역은 기술 및 자본집약적 상품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반면 수입은 시장개방확대정책으로 소비재 공산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.
- 5. 25 : 工振庁, 공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공통 素材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의 품질향상을 적극 지원키로.
- 5. 26 : 台灣 行政院, 대만의 수출수주 실적이 올 2/4분기 들어서면서 EC·일본·홍콩 등 유럽·아시아 지역에 대해 급증세를 보인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둔화되었다고.
- 5. 26 : 科技処, 기업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연구소의 설비를 적극 유도키로.
- 5. 27~31 : 電子組合·貿公, 「88한국 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」을 개최.
- 5. 27 : KDI,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중 11.4%의 실질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는 8%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지난해의 12%보다 2.5% 낮은 9.5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.
- 5. 28 : 貿公, 濠洲가 한국산 오디오 테이프에 대해 덤핑 1차 판정을 내렸다고.
- 5. 28 : 科技処, 내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16 및 64M DRAM의 설계 공정기술과 지능형 컴퓨터, 전문가 시스템 등의 개발에 착수할 계획.
- 5. 29 : 關稅庁, 수입자유화 조치로 위조화폐 제작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컬러복사기에 대해 내달부터 수입신고서 정밀분석 등 세관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.
- 5. 31 : 工振庁, 국내업체들의 기술지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술지도성과 보급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.